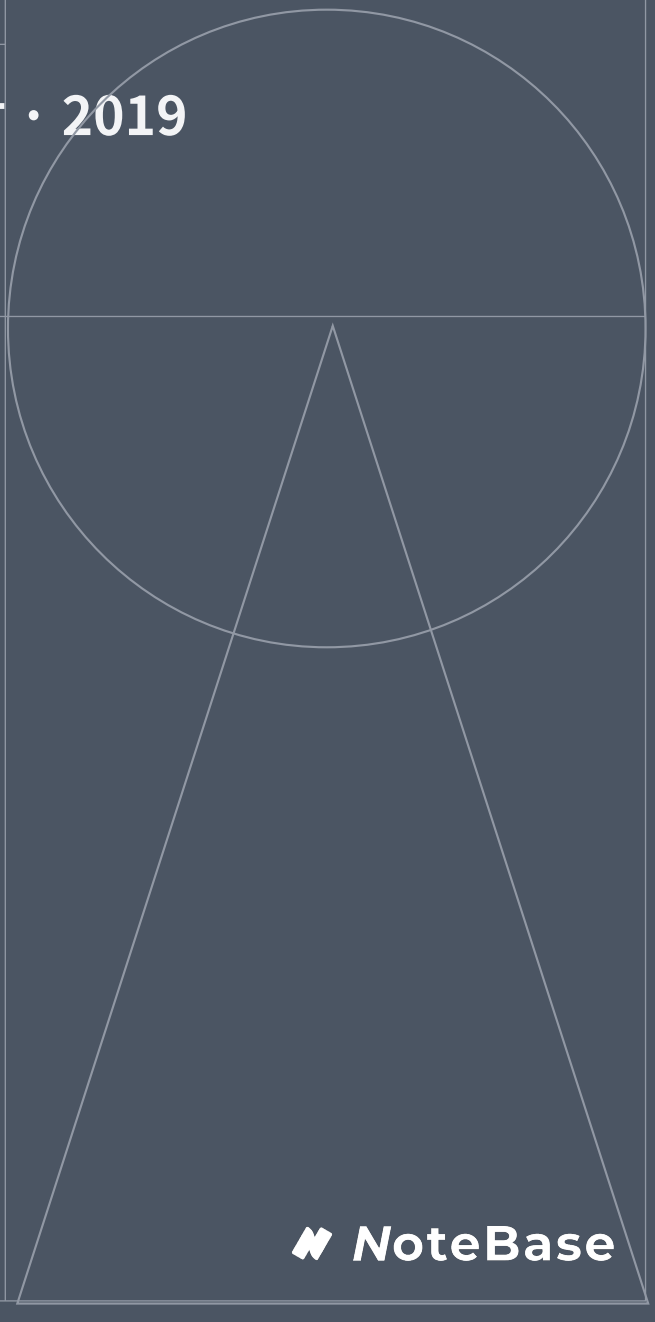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조경학 · 2019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조경학 · 2019

공무원/국가직/7급 · 조경학 · 2019

문 1. 조경계획 및 설계 과정 중 대안(alternatives)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안 작성과정을 통해 전체적 공간 이용에 대한 윤곽이 드러난다.

② 기본개념, 토지이용, 동선체계만큼은 대안들 간에 동일해야 한다.

③ 각 대안은 강점을 최대한 부각하는 방향에서 상이한 안을 제시한다.

④ 각 대안은 보통 1장의 도면 위에 토지이용, 동선 등 관련 사항이 표현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경계획 및 설계 과정에서 대안 작성의 목적과 대안들 사이에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대안 작성은 같은 대상지에 대해 서로 다른 공간구성 가능성을 비교하기 위한 단계이다.
대안은 기본개념, 토지이용, 동선체계 같은 핵심 구성에서 차이를 보여야 비교가 가능하다.
공통되는 것은 대상지의 기본 조건과 설계 목표이지, 대안의 공간 해법 자체가 아니다.

선지별 해설

1번: O. 대안을 작성하면 공간을 어떻게 구획하고 어떤 기능을 어디에 배치할지 큰 윤곽이 드러난다. 따라서 전체적 공간 이용에 대한 윤곽이 드러난다는 설명은 맞다.
2번: X. 틀린 부분은 "기본개념, 토지이용, 동선체계만큼은 대안들 간에 동일해야 한다"는 표현이다. 실제로는 대안은 기본개념, 토지이용, 동선체계에서 서로 차이를 보여야 하며, 그 차이를 비교하여 최적안을 선택한다.
3번: O. 대안은 서로 다른 방향의 안을 제시하여 각 안의 장점과 한계를 비교하는 자료이므로, 강점을 부각하는 방향에서 상이한 안을 제시한다는 설명은 맞다.
4번: O. 대안 단계에서는 보통 한 장의 개념도나 도면 위에 토지이용, 동선, 주요 시설 배치 등 관련 사항을 함께 표현하여 안별 특성을 비교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대안을 여러 개 만든다고 해서 모두 같은 틀을 반복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2번에 속기 쉽다. 대안의 핵심은 동일한 답안을 복제하는 데 있지 않고, 서로 다른 공간조직과 이용방식을 비교하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대안 관련 선지는 먼저 "비교를 위해 서로 달라야 하는 요소인가"를 본다. 기본개념, 토지이용, 동선체계처럼 안의 성격을 결정하는 요소를 동일하다고 하면 틀린 진술일 가능성이 크다.

암기 포인트

대안은 같은 답의 반복이 아니라 다른 개념안의 비교이다.

NoteBase

문 2.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잔디는?

◯ 한지형이며 지상의 포복경으로 퍼진다.
◯ 엽폭은 2 ~ 3mm 정도로 매우 가늘고 치밀하다.
◯ 다소 습하지만 비옥한 산성토양에서 잘 자란다.
◯ 국내에서는 골프장의 그린용으로 주로 이용되며 관리 요구도가 매우 높다.
◯ 품종으로 Penncross, Penneagle 등이 있다.

① 켄터키 블루그래스(Kentucky bluegrass)
② 크리핑 벤트그래스(Creeping bentgrass)
③ 톨 페스큐(Tall fescue)
④ 퍼레니얼 라이그래스(Perennial ryegrass)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한지형 잔디 중 크리핑 벤트그래스, 켄터키 블루그래스, 톨 페스큐, 퍼레니얼 라이그래스의 생육형과 잎 조직, 이용처, 대표 품종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크리핑 벤트그래스는 한지형이면서 지상포복경으로 퍼지고 잎이 매우 가늘며 골프장 그린에 쓰이는 고관리형 잔디이다.
켄터키 블루그래스는 지하경으로 퍼지는 치밀한 잔디로서 일반 잔디밭과 운동장에 많이 쓰인다.
톨 페스큐는 다발형이며 잎이 비교적 넓고 거칠고 더위와 건조에 강한 저관리형 쪽에 가깝다.
퍼레니얼 라이그래스는 다발형이며 발아와 초기 생육이 빠르지만 포복경으로 퍼지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켄터키 블루그래스는 한지형 잔디이지만 퍼지는 기관이 주로 지하경이므로 제시문의 '지상의 포복경으로 퍼진다'와 맞지 않는다.
틀린 표기는 '켄터키 블루그래스'이다. 올바르게는 크리핑 벤트그래스이다.

② O
크리핑 벤트그래스는 지상포복경으로 퍼지는 한지형 잔디이고, 잎 폭이 매우 가늘고 치밀하며, 산성 토양 적응성이 있고 골프장 그린용으로 대표적으로 이용된다.
또한 Penncross, Penneagle은 크리핑 벤트그래스의 대표 품종으로 잘 알려져 있으므로 제시문 전체와 일치한다.

③ X
톨 페스큐는 다발형이라는 점은 일부 비슷하지만 잎이 크리핑 벤트그래스처럼 2~3mm 수준으로 매우 가늘고 치밀한 잔디가 아니고, 그린용 초고관리 잔디도 아니다.
틀린 표기는 '톨 페스큐'이다. 올바르게는 크리핑 벤트그래스이다.

④ X
퍼레니얼 라이그래스는 다발형이고 초기 발아가 빠르지만 포복경으로 퍼지지 않으며, Penncross나 Penneagle 같은 품종군도 아니다.
틀린 표기는 '퍼레니얼 라이그래스'이다. 올바르게는 크리핑 벤트그래스이다.

오답 포인트

한지형 잔디라는 공통점만 보고 켄터키 블루그래스나 퍼레니얼 라이그래스를 고르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의 핵심 함정은 '지상의 포복경', '골프장 그린', 'Penncross·Penneagle'이라는 결정 단서를 묶어서 보지 않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잔디 초종 문제는 먼저 번식형을 본다. 지상포복경이면 크리핑 벤트그래스를 우선 떠올리고, 지하경이면 켄터키 블루그래스, 다발형이면 톨 페스큐나 퍼레니얼 라이그래스로 좁힌다. 그다음 그린용 고관리와 Penn계 품종 여부로 크리핑 벤트그래스를 확정한다.

암기 포인트

크리핑 벤트그래스는 포복경, 세엽, 그린용, Penncross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3. 경관생태학적 관점에서 코리더(corridor)의 '서식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양한 서식처를 좋아하는 종과 번식력이 강한 외래종이 있을 수 있다.

② 희귀종 또는 멸종위기종이 존재할 확률은 매우 낮다.

③ 주연부는 높은 종밀도를 갖는 경향이 있다.

④ 코리더를 이용하는 야생동물은 식물 유전자의 이동을 돕는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코리더의 서식처 기능과 이동 통로 기능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서식처 기능은 코리더 자체가 생물이 먹이활동, 은신, 번식, 휴식을 하는 생활공간으로 작동하는 기능이다.
이동 통로 기능은 코리더가 개체나 유전자, 종자의 이동을 이어 주는 연결축으로 작동하는 기능이다.
서식처 기능은 코리더 안에서 사는가가 기준이고, 이동 통로 기능은 코리더를 통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가가 기준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다양한 서식처를 이용하는 일반종이나 번식력이 강한 외래종은 폭이 좁고 교란이 잦은 코리더에도 정착할 수 있다. 코리더의 서식처 기능은 이런 종에게 실제 생활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② O
코리더는 대체로 면적이 좁고 가장자리 영향이 강해 안정된 내부 서식환경이 부족하다. 따라서 희귀종이나 멸종위기종이 핵심 서식지처럼 높은 확률로 존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옳다.

③ O
코리더는 폭이 좁아 주연부 비율이 크므로 가장자리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주연부의 종밀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은 서식처 기능의 특징으로 볼 수 있어 옳다.

④ X
틀린 부분은 "야생동물은 식물 유전자의 이동을 돕는다"를 서식처 기능의 설명으로 제시한 점이다.
실제로는 야생동물이 종자나 화분의 이동을 매개하여 식물 유전자의 이동을 돕는다는 내용은 코리더의 이동 통로 또는 연결 기능에 해당한다. 서식처 기능으로 고치려면 "코리더는 일부 야생동물에게 먹이활동, 은신, 번식의 공간을 제공한다"가 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코리더의 기능을 모두 비슷하게 외우면 ④처럼 이동을 돕는 기능과 실제로 살아가는 기능을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은 "서식처 기능"이라고 범위를 먼저 제한해 놓고, 연결 기능의 설명을 끼워 넣은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 내용이 코리더 안에서 생활하는지를 말하면 서식처 기능이고, 다른 패치를 오가게 하거나 유전자 이동을 이어 준다고 하면 이동 통로 기능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서식처는 코리더 안에서 산다, 통로 기능은 코리더를 통해 이동한다.

NoteBase

문 4. 조경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순회점검의 주요 관점이 아닌 것은?

① 안전성의 확인
② 쾌적성의 확인
③ 기능성의 확인
④ 심미성의 확인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조경시설의 정기적 순회점검에서 우선 확인하는 관점이 안전성·쾌적성·기능성인지, 심미성과 구별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안전성은 이용 중 사고 위험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 쾌적성은 이용자가 불쾌감 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기능성은 시설이 본래 목적대로 정상 작동하는 상태를 뜻한다. 심미성은 보기 좋고 경관적으로 조화로운 상태를 뜻하지만, 정기적 순회점검의 1차적 핵심 관점으로 보지는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안전성 확인은 순회점검의 핵심이다. 파손, 탈락, 미끄럼, 전도 위험처럼 이용자 사고로 바로 이어질 요소를 먼저 점검한다.

② O
쾌적성 확인도 주요 관점이다. 오염, 배수 불량, 악취, 이용 불편 요소는 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판단하는 직접 기준이 된다.

③ O
기능성 확인 역시 주요 관점이다. 벤치, 조명, 포장, 배수, 놀이시설 등이 본래 용도대로 작동하는지를 봐야 유지관리가 성립한다.

④ X
틀린 부분은 "주요 관점"이라는 표현이다. 심미성은 조경시설 관리에서 중요하지만, 정기적 순회점검의 우선 점검축은 안전성·쾌적성·기능성이다. 올바르게는 "심미성은 보조적으로 살필 수 있으나 정기적 순회점검의 주요 관점은 아니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심미성도 조경에서 중요한 가치이므로 맞는 말처럼 보이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은 조경의 일반적 목표가 아니라 순회점검의 실무상 우선 확인 항목을 묻기 때문에 안전성·쾌적성·기능성을 먼저 잡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유지관리의 순회점검 문제에서는 먼저 사고 위험이 있는지, 이용이 불편하지 않은지, 시설 기능이 살아 있는지를 본다. 경관의 아름다움처럼 상대적으로 후순위인 가치가 나오면 정답 후보에서 한 번 더 의심한다.

암기 포인트

순회점검의 3축은 안전성·쾌적성·기능성이고, 심미성은 주된 점검축이 아니다.

NoteBase

문 5. 수목 전정의 '생리상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목이 갖는 본연의 미를 높여 준다.

② 새로운 가지를 재생하여 수목생육에 활력을 준다.

③ 개화와 결실을 촉진한다.

④ 이식 시 활착상태를 좋게 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수목 전정의 목적 중 생리상 목적과 미관상 목적을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생리상 목적은 전정을 통해 수세를 조절하고 새가지 발생, 개화·결실, 이식 후 활착처럼 생육 반응을 좋게 하는 데 있다.
미관상 목적은 수형을 다듬고 관상가치를 높여 수목의 외형적 아름다움을 살리는 데 있다.
이 문항의 구별 기준은 생육 기능의 개선인지, 외형의 아름다움 향상인지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본연의 미"이다. 수목이 지닌 아름다움을 높이는 것은 생리상 목적이 아니라 미관상 목적이다. 생리상 목적으로 고치면 "수세를 조절하고 생육 균형을 좋게 한다"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맞다.
② O. 전정은 잠아의 활동과 새가지 발생을 촉진하여 수목의 생육을 다시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가지를 재생하여 수목생육에 활력을 준다는 설명은 생리상 목적에 해당한다.
③ O.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면 통풍, 채광, 양분 배분이 개선되어 꽃눈 형성이나 결실에 유리해질 수 있다. 따라서 개화와 결실을 촉진한다는 설명은 맞다.
④ O. 이식한 수목은 뿌리 손실로 흡수 능력이 줄어든 상태이므로 지상부를 적절히 줄여 수분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식 시 활착상태를 좋게 한다는 설명은 생리상 목적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전정의 효과라는 공통점만 보고 모두 생리상 목적으로 묶으면 ①을 놓치기 쉽다. ①의 핵심 표현인 "본연의 미"는 생육 기능이 아니라 관상 가치와 수형을 뜻하므로 미관상 목적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미, 수형, 경관, 관상가치처럼 외형을 드러내는 말이 나오면 미관상 목적으로 본다. 반대로 생장, 새가지, 개화·결실, 활착, 수세 조절처럼 생리 반응이나 생육 상태를 바꾸는 말이 나오면 생리상 목적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미는 미관상 목적이고, 생장·개화·활착은 생리상 목적이다.

NoteBase

문 6. 다음 별서(別墅)를 조영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담양 소쇄원
ㄴ. 강진 다산초당
ㄷ. 영양 서석지
ㄹ. 화순 임대정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ㄱ → ㄷ → ㄴ → ㄹ
③ ㄷ → ㄱ → ㄹ → ㄴ
④ ㄷ → ㄴ → ㄱ →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대표적 별서의 조영 연대를 알고 이를 빠른 시기부터 늦은 시기까지 배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ㄱ 담양 소쇄원(1530년대) → ㄷ 영양 서석지(1613년) → ㄴ 강진 다산초당(1808년) → ㄹ 화순 임대정(1862년)이다.
왜 이 순서: 소쇄원은 조선 전기, 서석지는 조선 중기, 다산초당은 조선 후기 초, 임대정은 조선 후기 말에 해당하므로 이 연대 흐름이 유지되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ㄴ과 ㄷ의 선후가 바뀌었다. 서석지는 정영방이 1613년에 조성한 정원이고, 다산초당은 정약용이 1808년에 옮겨와 꾸린 공간이므로 서석지가 먼저이다. 틀린 표현은 'ㄱ→ㄴ→ㄷ→ㄹ'이고, 올바르게는 'ㄱ→ㄷ→ㄴ→ㄹ'이다.
② O: 소쇄원은 양산보가 1530년대에 조성한 별서이고, 서석지는 1613년, 다산초당은 1808년, 임대정은 1862년에 해당하므로 조영 시기순 배열이 맞다.
③ X: 맨 앞의 ㄷ과 ㄱ의 선후가 바뀌었고 뒤의 ㄹ과 ㄴ의 선후도 바뀌었다. 서석지는 소쇄원보다 늦고, 임대정은 다산초당보다 늦다. 틀린 표현은 'ㄷ→ㄱ→ㄹ→ㄴ'이고, 올바르게는 'ㄱ→ㄷ→ㄴ→ㄹ'이다.
④ X: 첫 단계부터 틀렸다. 소쇄원은 1530년대 조성으로 서석지 1613년보다 이르므로 ㄷ이 아니라 ㄱ이 먼저 와야 한다. 틀린 표현은 'ㄷ→ㄴ→ㄱ→ㄹ'이고, 올바르게는 'ㄱ→ㄷ→ㄴ→ㄹ'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서석지와 소쇄원을 모두 전통 민간정원으로만 묶어 기억하면 조선 전기와 조선 중기의 차이가 흐려지기 쉽다. 또 다산초당과 임대정을 모두 조선 후기로만 외우면 1808년과 1862년의 선후를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별서 순서 문제는 각 유적의 대표 연대를 먼저 한 점으로 잡고 조선 전기 → 중기 → 후기 초 → 후기 말의 큰 흐름으로 정리하면 된다. 정확한 연도가 잠시 흔들려도 1530년대, 1613년, 1808년, 1862년의 전후 관계만 잡으면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소쇄원 1530년대 → 서석지 1613년 → 다산초당 1808년 → 임대정 1862년의 흐름이다.

NoteBase

문 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상 1,200세대 규모의 주택단지에서 요구되는 주민공동시설의 최소 면적[m^2]은? (단, 자치단체의 조례 기준은 배제함)

① 1,200
② 1,500
③ 2,000
④ 2,900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1,000세대 이상 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 최소 설치면적 산정식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1,000세대 미만 구간의 세대당 $2.5m^2$ 기준과 1,000세대 이상 구간의 $500m^2$ + 세대당 $2m^2$ 기준을 구별하는 데 있다.

용어 풀이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의 총 설치면적 기준을 말한다.

핵심 구분

원칙적으로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은 세대당 $2.5m^2$를 적용한다. 다만 1,000세대 이상은 $500m^2$에 세대당 $2m^2$를 더한다.
따라서 1,200세대는 $500 + 1{,}200 \times 2 = 2{,}900m^2$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1,200은 1,000세대 이상 구간의 기본면적 $500m^2$와 세대당 $2m^2$ 기준을 반영하지 못한 값이다.
- 틀린 표현: 1,200
- 올바른 표현: 2,900

② X
- 1,500도 1,000세대 이상 구간의 산정식과 맞지 않는 값이다. 1,200세대는 세대당 $2m^2$를 적용한 값에 기본면적 $500m^2$를 더해야 한다.
- 틀린 표현: 1,500
- 올바른 표현: 2,900

③ X
- 2,000 역시 기준식과 맞지 않는다. 1,200세대라면 세대당 면적분 $2{,}400m^2$에 기본면적 $500m^2$를 더해야 한다.
- 틀린 표현: 2,000
- 올바른 표현: 2,900

④ O
- 1,000세대 이상은 $500m^2$ + 세대당 $2m^2$이므로 1,200세대의 최소 주민공동시설 면적은 $2{,}900m^2$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를 틀렸다면 1,000세대 기준으로 산정식이 바뀐다는 점을 놓쳤을 가능성이 높다. 1,000세대 미만의 세대당 $2.5m^2$ 공식을 그대로 끌고 가거나, 1,000세대 이상 구간의 기본면적 $500m^2$를 빼먹는 실수가 자주 나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주민공동시설 문제는 먼저 세대 수가 1,000 미만인지 이상인지를 가른다. 1,000세대 이상이면 바로 $500m^2$ + 세대당 $2m^2$ 식을 적용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주민공동시설은 1,000세대를 경계로 식이 바뀐다. 미만은 세대당 $2.5m^2$, 이상은 $500m^2$ + 세대당 $2m^2$이다.

NoteBase

문 8. Pinus 속(屬)으로 분류되는 수목은?

① 섬잣나무
② 전나무
③ 독일가문비
④ 일본잎갈나무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소나무속(Pinus)에 속하는 수목과 전나무속·가문비나무속·잎갈나무속 수목을 구별하는 분류 개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Pinus는 소나무류와 잣나무류가 속하는 소나무속이다.
Abies는 전나무류가 속하는 전나무속이다.
Picea는 가문비나무류가 속하는 가문비나무속이다.
Larix는 잎갈나무류가 속하는 잎갈나무속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섬잣나무는 잣나무류이므로 소나무속(Pinus)에 속한다.
② X: 틀린 부분은 전나무를 Pinus 속으로 본 점이다. 전나무는 전나무속(Abies)에 속한다.
③ X: 틀린 부분은 독일가문비를 Pinus 속으로 본 점이다. 독일가문비는 가문비나무속(Picea)에 속한다.
④ X: 틀린 부분은 일본잎갈나무를 Pinus 속으로 본 점이다. 일본잎갈나무는 잎갈나무속(Larix)에 속한다.

오답 포인트

모두 침엽수라는 공통점이 있어 한꺼번에 소나무류로 묶기 쉽지만, 속 단계에서는
소나무속·전나무속·가문비나무속·잎갈나무속이 각각 다르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침엽수 여부만 보지 않고 국명과 대표 속명을 함께 연결하면 판단이 쉬워진다. 잣나무류는 Pinus, 전나무류는 Abies, 가문비류는 Picea, 잎갈나무류는 Larix로 정리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잣나무는 Pinus, 전나무는 Abies, 가문비는 Picea, 잎갈나무는 Larix이다.

NoteBase

문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주제공원이 아닌 것은?

① 어린이공원
② 체육공원
③ 도시농업공원
④ 수변공원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의 분류에서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용어 풀이

생활권공원은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이고, 주제공원은 생활권공원 외에 특정 목적에 따라 설치하는 공원이다.

핵심 구분

어린이공원은 생활권공원에 속한다. 반면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수변공원은 모두 주제공원에 속한다.

선지별 해설

1번 O: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으로 생활권공원이다. 따라서 주제공원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정답이 된다.
2번 X: 체육공원은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주제공원이다.
틀린 표현: 체육공원을 주제공원이 아니라고 보는 판단
올바른 표현: 체육공원은 주제공원이다.
3번 X: 도시농업공원은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주제공원이다.
틀린 표현: 도시농업공원을 주제공원이 아니라고 보는 판단
올바른 표현: 도시농업공원은 주제공원이다.
4번 X: 수변공원은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주제공원이다.
틀린 표현: 수변공원을 주제공원이 아니라고 보는 판단
올바른 표현: 수변공원은 주제공원이다.

오답 포인트

어린이공원은 이름만 보면 특정 이용대상을 가진 주제공원처럼 보이기 쉬우나, 법률상 분류에서는 생활권공원이다. 명칭의 느낌보다 법정 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도시공원을 국가도시공원, 생활권공원, 주제공원으로 큰 틀에서 나눈다. 그다음 생활권공원은 소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으로, 주제공원은 역사·문화·수변·묘지·체육·도시농업 등으로 연결하여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어린이공원은 생활권공원이고, 체육공원·도시농업공원·수변공원은 주제공원이다.

NoteBase

문 10. 4월에 전정하면 개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은 수목은?

① 배롱나무
② 무궁화
③ 금목서
④ 등나무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수목별 개화 시기와 꽃이 달리는 가지의 성질을 함께 비교해 4월 전정이 개화에 가장 불리한 수종을 고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봄에 꽃이 피는 수목은 전년도에 형성된 꽃눈이나 꽃차례로 개화하는 경우가 많아, 개화 직전이나 개화기에 전정하면 꽃을 직접 잃기 쉽다.
여름·가을에 꽃이 피는 수목은 4월 전정이 있더라도 개화 시점이 아직 멀어 직접적인 개화 손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다.
이 문항에서는 등나무가 4~5월에 꽃이 피고, 배롱나무와 무궁화는 여름, 금목서는 가을에 꽃이 피므로 4월 전정의 위험도가 가장 크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배롱나무는 여름에 꽃이 피는 수목이어서 4월 전정이 곧바로 개화 직전의 꽃을 잘라내는 상황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배롱나무'이다. 올바르게는 4월 전정으로 개화 피해 가능성이 가장 큰 수목은 등나무이다.

② X
무궁화는 여름부터 개화하는 수목으로, 4월 전정이 봄 개화 직전의 꽃차례를 제거하는 상황과 거리가 있다.
틀린 표현은 '무궁화'이다. 올바르게는 봄에 바로 꽃이 달리는 등나무가 더 불리하다.

③ X
금목서는 가을에 꽃이 피는 수목이므로 4월 전정이 즉시 개화 자체를 끊어 버릴 가능성은 등나무보다 낮다.
틀린 표현은 '금목서'이다. 올바르게는 4월 전정의 직접 피해가 가장 큰 수목은 등나무이다.

④ O
등나무는 4~5월에 꽃이 피는 대표적인 봄 개화 수목이다. 꽃은 전년도 가지에서 준비된 꽃눈과 꽃차례로 피므로 4월에 전정하면 개화 직전 또는 개화 중인 부위를 잘라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오답 포인트

수험생은 개화 월만 외우고 끝내거나, 전정을 하면 새가지가 나와 꽃이 더 잘 필 것이라고 단순화하기 쉽다.
그러나 봄 개화수목은 '언제 피는가'와 '어느 가지에 꽃이 달리는가'를 같이 봐야 한다. 특히 ④는 4월이 실제 개화기와 겹쳐 전정 피해가 즉시 나타난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정 시기 문제는 먼저 개화 계절을 나누고, 그다음 꽃이 지난해 가지에 달리는지 올해 가지에 달리는지를 본다.
전정 시점이 개화 직전·개화기와 겹치고 꽃이 묵은 가지에 달리면 개화 피해 가능성이 가장 크다.

암기 포인트

봄꽃은 묵은 가지, 여름꽃은 새가지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고, 등나무는 4월 전정이 곧 꽃 손실로 이어지기 쉽다.

NoteBase

문 11. 돌쌓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메쌓기 할 때는 돌 사이에 모르타르를 채운다.

② 큰 돌을 하층에 쌓은 뒤 순차적으로 작은 돌을 쌓아 올린다.

③ 뒤채움 시에는 토압을 줄이고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한다.

④ 규준이 되는 돌을 정치한 뒤 규준실을 따라 쌓아간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돌쌓기의 기본 시공 원리, 특히 메쌓기와 찰쌓기의 구별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메쌓기: 돌 사이를 모르타르로 채우지 않고 돌의 맞물림과 자중으로 안정시키는 건식 쌓기이다. 키워드는 무모르타르, 맞물림, 배수성이다.
찰쌓기: 돌 사이 줄눈에 모르타르를 채워 접착력과 일체성을 높이는 습식 쌓기이다. 키워드는 모르타르 충전, 줄눈, 접착이다.
돌쌓기 일반: 큰 돌을 아래에 두고 뒤채움 배수를 확보하며, 규준돌과 규준실로 면과 기울기를 맞추어 쌓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메쌓기는 돌 사이에 모르타르를 채우지 않는 방식이다. 틀린 표현은 "모르타르를 채운다"이다. 올바르게는 "메쌓기는 돌 사이에 모르타르를 채우지 않고 쌓는다"이다.
② O: 큰 돌을 하층에 두고 위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작은 돌을 배치하는 것이 안정에 유리하다. 하부의 지지력을 크게 하고 상부 하중을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기본 원리에 맞는다.
③ O: 뒤채움은 토압을 줄이고 물이 고이지 않게 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해야 한다. 뒤채움과 배수가 불량하면 벽체 뒤에 수압과 토압이 증가하여 붕괴 위험이 커진다.
④ O: 먼저 규준이 되는 돌을 정확히 놓고 규준실을 기준으로 면과 선형을 맞추어 쌓아간다. 이는 돌쌓기 면의 통일성과 시공 정밀도를 확보하는 기본 절차이다.

오답 포인트

메쌓기와 찰쌓기의 차이를 바꾸어 기억하면 ①에 바로 걸리게 된다. 이 문항의 함정은 "돌쌓기"라는 큰 범주 안의 일반 원리와, "메쌓기"라는 특정 공법의 핵심 차이를 섞어 놓은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모르타르 사용 여부가 나오면 먼저 메쌓기인지 찰쌓기인지부터 구분한다. 이어서 큰 돌은 아래, 배수는 뒤채움, 선형 관리는 규준실이라는 시공 기본 원리와 맞는지 대조하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메쌓기는 무모르타르, 찰쌓기는 모르타르 충전이다.

NoteBase

문 12. 개발사업으로 인한 경관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조망점(경관통제점) 선정 시 고려 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 예비조망점은 대상물을 중심으로 근경에서만 선정한다.

② 이용밀도가 높은 장소는 선정하지 않는다.

③ 예비조망점은 대상물의 형태와 주변 경관 파악을 위해 4방향 이상을 고려한다.

④ 교통로(도로 및 항공노선)와 도로 교차점은 피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개발사업의 경관영향 검토에서 조망점 선정 기준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조망점은 개발대상지가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를 대표적으로 확인하는 시점이다.
예비조망점은 대상지를 둘러싼 여러 방향과 거리대, 이용자 접근성과 이용밀도를 함께 고려해 선정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부분은 "근경에서만"이다.
- 예비조망점은 대상물을 중심으로 근경에만 한정하지 않고 중경과 원경까지 포함해 선정한다.

② X
- 틀린 부분은 "선정하지 않는다"이다.
- 이용밀도가 높은 장소는 실제 경관 수용자가 많은 지점이므로 오히려 중요한 조망점 후보가 된다.

③ O
- 예비조망점은 대상물의 형태와 주변 경관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파악해야 하므로 4방향 이상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 여러 방향을 검토해야 특정 방향만 보고 경관영향을 축소 판단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다.

④ X
- 틀린 부분은 "피한다"이다.
- 교통로와 도로 교차점은 이동 중 조망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점이므로 중요한 조망점 후보로 검토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은 "만", "선정하지 않는다", "피한다"처럼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표현이 함정이다. 조망점 선정은 배제보다 대표성 확보가 핵심이므로 다방향, 다거리, 고이용 지점을 포함하는 쪽이 맞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망점 문제는 먼저 대표성 있는 시점인지 판단한다. 여러 방향에서 보이는지, 근경·중경·원경을 포괄하는지, 실제 이용자가 많은 장소인지 확인하면 정답을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조망점은 근경만이 아니라 다거리, 한 방향이 아니라 4방향 이상, 한적한 곳보다 이용자가 많은 곳을 본다.

NoteBase

문 13. Betula platyphylla var. japonica (Miq.) H. Har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낙엽활엽교목이다.

② 수피는 녹색으로 특이하며 가을철 황색 단풍이 든다.

③ 비교적 생육속도가 빠르고 양지에서 잘 자란다.

④ 내공해성이 강하지 않으며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는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자작나무의 형태적 특징과 생태적 성질을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작나무는 낙엽활엽교목으로 흰색 또는 분백색 수피가 대표 특징인 수종이다.
생장이 비교적 빠르고 햇빛을 좋아하는 양수성 수종이며, 뿌리는 깊게 박히기보다 얕게 퍼지는 천근성에 가깝다.
도시 공해와 건조에는 강한 편이 아니어서 식재지 환경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낙엽활엽교목이라는 설명은 자작나무의 기본 분류와 맞는다.

② X
틀린 표현은 "수피는 녹색"이다.
자작나무의 대표 형질은 녹색 수피가 아니라 흰색 또는 분백색 수피이다.
가을에 잎이 누렇게 드는 성질 자체는 볼 수 있으나, 선지는 수피 색을 잘못 적어 전체적으로 틀린 설명이 된다.

③ O
자작나무는 비교적 생장속도가 빠른 편이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생육이 좋다.
따라서 양지에서 잘 자란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④ O
자작나무는 내공해성이 강한 수종으로 보기 어렵고 뿌리도 심근성보다 천근성에 가깝다.
따라서 공해에 약한 편이며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는다는 설명은 맞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가을철 황색 단풍이라는 익숙한 표현을 붙여 두고 앞부분의 "녹색 수피" 오류를 놓치게 만든 선지이다. 자작나무는 이름을 몰라도 백색 수피가 대표 형질이라는 점을 잡으면 바로 걸러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목 특성 문제는 먼저 수피 색, 낙엽 여부, 양수·음수성, 뿌리의 심근성·천근성처럼 변별력이 큰 고정 형질부터 확인하면 된다. 자작나무가 나오면 백색 수피, 양지성, 천근성을 우선 연결하면 선지 판단이 빨라진다.

암기 포인트

자작나무는 흰 수피의 낙엽활엽교목이며 양지성, 천근성, 내공해성은 약한 편이다.

NoteBase

문 14. 배수설계를 위한 우수유출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강우강도는 단위 시간 당 내린 강우량(mm)을 기준으로 표시되며 통상 mm/hr로 표시된다.

② 강우강도는 강우계속시간(min)에 의해 결정되며 지역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③ 유달시간은 우수(雨水)가 지표면의 흐름을 통하여 배수구역내 관거에 유입될 때까지의 시간(min)이다.

④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포장지역은 잔디 및 식생지역에 비해 유출계수가 작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배수설계의 기본 개념인 강우강도, 유달시간, 유출계수의 정의와 차이를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 강우강도: 단위시간당 내린 평균 강우량으로 표시하며 통상 단위는 *mm/hr*이다.
- 유달시간: 배수구역의 최원점에서 나온 우수가 계획지점이나 유출구까지 도달하는 총 시간으로, 지표유하와 관거 흐름 시간이 함께 포함된다.
- 유출계수: 강우량 중 직접유출로 전환되는 비율이며, 불투수면이 클수록 값이 커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 강우강도는 일정 시간 동안 내린 강우량을 시간당 강우량으로 환산한 값이며 보통 단위는 *mm/hr*로 나타낸다.

② X
- 틀린 부분은 "지역에 관계없이 일정하다"이다.
- 강우강도는 강우지속시간뿐 아니라 빈도와 지역별 강우특성에도 따라 달라진다. 실제로는 지역별 강우강도-지속시간-빈도 관계를 사용한다.

③ X
- 틀린 부분은 "관거에 유입될 때까지의 시간"이다.
- 이는 지표유하시간 또는 유입시간에 가까운 설명이다. 유달시간은 배수구역 최원점의 우수가 계획지점 또는 유출구까지 도달하는 총 시간으로, 관거 내 이동시간까지 포함한다.

④ X
- 틀린 부분은 "유출계수가 작다"이다.
-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포장지역은 불투수성이 커서 잔디 및 식생지역보다 유출계수가 더 크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유달시간과 유입시간을 바꿔 묻는 함정이다. ④는 포장면이 물을 잘 흘려보낸다는 직관을 놓치면 반대로 판단하기 쉽다. ②는 강우강도가 지속시간만의 함수라고 단순화하면 틀리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배수설계 문항에서는 먼저 각 용어가 무엇을 어디까지 재는 개념인지 본다. 강우강도는 시간당 강우량, 유달시간은 최원점에서 계획지점까지의 총 도달시간, 유출계수는 직접유출 비율로 정리하면 선지 판단이 빨라진다.

암기 포인트

강우강도는 *mm/hr*, 유달시간은 최원점부터 유출구까지의 총 시간, 불투수면은 유출계수가 크다.

NoteBase

문 15. 수경(水景) 연출기법별 세부 유형을 바르게 짝 지은 것은?

① 자유낙수 - 단차식, 분리수막형

② 사면낙수 - 수막형, 분출형

③ 방해낙수 - 기포수벽, 폭포형수벽

④ 분수 - 수조식, 조형식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수경 연출기법에서 자유낙수·사면낙수·방해낙수·분수의 세부 유형을 같은 분류축에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유낙수는 물이 방해를 받지 않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직접 떨어지는 형태이다.
사면낙수는 경사면을 따라 물이 흘러내리는 형태이며 조형식, 일반식, 수조식으로 구분한다.
방해낙수는 물이 물체나 벽면에 부딪히면서 떨어지는 형태로 수포와 소리가 커지고 수벽 효과를 만들기 쉽다.
분수는 노즐과 수압으로 물을 위로 분출하는 형태이며 단일구경 분수, 분사식 분수, 기포식 분수, 수막식 분수로 구분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자유낙수는 방해 없이 바로 떨어지는 낙하 방식 자체를 말한다.
틀린 부분은 "단차식, 분리수막형"이다.
단차를 따라 흐르는 형식은 사면낙수 쪽 분류이고, 수막을 형성하는 연출은 자유낙수의 세부 유형으로 보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자유낙수는 직접 낙하 여부로 이해해야 한다.

② X
사면낙수는 사면을 따라 물이 흘러내리는 형식이다.
틀린 부분은 "수막형, 분출형"이다.
분출형과 수막형은 분수 계열의 세부 유형에 가깝고, 사면낙수는 조형식, 일반식, 수조식처럼 경사면을 따라 흐르는 형식으로 구분한다.

③ O
방해낙수는 물이 중간의 물체나 벽면에 부딪히면서 떨어지는 형식이므로 기포와 수벽 효과가 잘 나타난다.
기포수벽, 폭포형수벽은 모두 이런 방해 요소를 활용해 시각적 효과와 음향 효과를 만드는 유형이어서 방해낙수의 설명으로 타당하다.

④ X
분수는 수압과 노즐로 물을 분출하는 형식이다.
틀린 부분은 "수조식, 조형식"이다.
수조식과 조형식은 이 문항의 분류체계에서 사면낙수 쪽 세부 유형이고, 분수는 단일구경 분수, 분사식 분수, 기포식 분수, 수막식 분수로 구분한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비슷한 용어를 다른 분류축에 섞어 놓은 점이다. 특히 ④는 분수가 실제로 수조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 때문에 "수조식"을 분수의 세부 유형처럼 착각하기 쉽고, ②는 "분출"과 "수막"이라는 말 때문에 물이 흐르는 모습만 보고 사면낙수로 오인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물의 움직임 방향과 방해 요소를 본다. 방해 없이 곧바로 떨어지면 자유낙수, 사면을 타고 내려오면 사면낙수, 벽이나 물체에 부딪히면 방해낙수, 노즐로 위로 뿜어 올리면 분수이다. 그다음 세부 유형을 대응시키면 오답을 빠르게 걸러낼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사면낙수는 조형식·일반식·수조식, 분수는 단일구경·분사식·기포식·수막식, 방해낙수는 수벽 효과가 핵심이라는 점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6. 생태·자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연성, 경관적 가치, 보존가치에 따라 1~9등급으로 구분한다.

②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해 제작한다.

③ 원칙적으로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④ 자연경관, 생물분포, 토지이용현황 등을 축척 1:50,000 지도상에 작성한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생태·자연도의 법적 근거, 작성 원칙, 등급 체계, 작성 축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자연도의 등급 구분과 작성지침상의 작성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다.

용어 풀이

생태·자연도는 전국의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와 보전 필요성에 따라 등급화하여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에 활용하는 지도이다.

핵심 구분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작성된다. 등급 체계는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3등급 권역, 별도관리지역으로 나뉜다.
작성은 원칙적으로 현지조사 결과에 기초하고, 축척은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이유는 생태·자연도를 1~9등급으로 구분한다고 한 부분이다. 「자연환경보전법」상 구분은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3등급 권역, 별도관리지역이다.
- 틀린 표현: "1~9등급으로 구분한다"
- 올바른 표현: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3등급 권역,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한다"

② O
-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작성되고,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시행령과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에서 정한다.
- 따라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해 제작한다"는 설명은 옳다.

③ X
- 틀린 이유는 문헌조사가 원칙이라는 부분이다. 작성지침은 현지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때 조사보고서, 학술발표 자료, 위성영상, 항공사진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 틀린 표현: "원칙적으로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 올바른 표현: "원칙적으로 현지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작성하고, 필요할 경우 문헌자료와 영상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④ X
- 틀린 이유는 작성 축척을 1:50,000으로 본 부분이다. 작성지침은 생태·자연도를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에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법도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표시하도록 정한다.
- 틀린 표현: "축척 1:50,000 지도상에 작성한다"
- 올바른 표현: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상에 작성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등급 수를 식생보전등급 같은 다른 분류체계와 섞으면 틀리기 쉽고, ③은 문헌조사와 현지조사의 원칙·보조 관계를 뒤집은 함정이다. ④는 1:25,000과 1:50,000을 바꾸어 묻는 대표적인 숫자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 유형은 먼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등급 체계, 작성 원칙, 축척 같은 고정 요소를 대조하면 된다. 숫자나 원칙·예외 표현이 바뀌어 있으면 오답 가능성이 크다.

암기 포인트

생태·자연도는 법 제34조, 1·2·3등급+별도관리, 원칙은 현지조사, 축척은 1:25,000이다.

NoteBase

문 17. 운동시설 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옥외 게이트볼장은 표면배수를 위하여 5%의 경사를 만든다.

② 운동시설 부지의 지반고는 일반적으로 인접지반고보다 낮게 시공한다.

③ 야구장은 내·외야수가 오후에 태양을 등지고 경기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④ 운동시설은 가급적 시설의 장축을 동-서 방향으로 배치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운동시설 시공에서 배수 경사, 부지의 지반고, 야구장 방위, 시설 장축 방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운동시설 배치는 배수와 경기성, 일조, 안전을 함께 본다.
배수 경사는 물만 빠질 정도의 완만한 경사가 원칙이고, 운동시설 부지는 외부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인접 지반보다 낮지 않게 잡는다.
야구장은 오후 태양광을 피하도록 내·외야수가 태양을 등지게 배치하고, 일반적인 옥외 운동시설의 장축은 동-서보다 남-북 방향이 유리하다.

선지별 해설

① X
옥외 게이트볼장에 5% 경사를 주면 경기면이 지나치게 기울어져 타구의 구름과 경기성이 나빠진다. 틀린 표현은 "5%의 경사"이다. 올바르게는 표면배수가 가능할 정도의 완만한 경사를 둔다.

② X
운동시설 부지의 지반고를 인접지반고보다 낮게 시공하면 외부 지표수가 유입되기 쉽다. 틀린 표현은 "인접지반고보다 낮게"이다. 올바르게는 일반적으로 인접지반고보다 낮지 않도록 시공한다.

③ O
야구장은 오후 경기 시 태양이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내·외야수가 태양을 등지는 방향으로 배치한다.
홈플레이트의 방향을 조정해 눈부심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④ X
운동시설의 장축을 동-서 방향으로 두면 오전·오후의 낮은 태양광이 시야를 방해하기 쉽다. 틀린 표현은 "동-서 방향"이다. 올바르게는 가급적 시설의 장축을 남-북 방향으로 배치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의 야구장 방위를 모르면 ④의 "동-서 방향" 표현도 그럴듯하게 보이기 쉽다. 이 문제는 배수는 완만하게, 부지 높이는 외부수 유입을 막게, 장축은 일조 장애를 줄이게 본다는 원칙을 한꺼번에 섞어 놓은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운동시설 배치 문제는 먼저 물이 밖으로 빠지는지, 밖의 물이 안으로 들어오는지, 오후 태양이 선수 시야를 가리는지 순서로 판단한다. 배수는 완만한 경사, 부지 높이는 낮지 않게, 장축은 남-북, 야구장은 태양을 등지게로 정리하면 선지 판단이 빨라진다.

암기 포인트

운동시설은 "완만 배수, 낮지 않은 부지, 남-북 장축, 야구장은 태양을 등짐"으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18. 골프장 잔디밭의 통기작업(core aerific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과 양분의 침투 및 뿌리의 생육을 용이하게 한다.

② 표토층을 섞어 주며 뿌리 및 줄기의 생육을 왕성하게 한다.

③ 죽은 잔디의 잎과 줄기 등이 쌓인 층을 줄여 주는 효과가 크다.

④ 잔디가 휴면기에 들어간 시기에 시행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코어 에어리피케이션의 주요 효과와 적정 실시 시기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코어 에어리피케이션은 중공 타인으로 토양 코어를 뽑아내어 다짐을 완화하고 공기와 물의 이동을 좋게 하며 뿌리 생육을 돕는 통기 작업이다.
핵심 구별점은 효과와 시기이다. 효과는 투수성·통기성 개선과 thatch 감소이고, 시기는 휴면기가 아니라 잔디가 회복할 수 있는 생육기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코어를 뽑아내면 토양 다짐이 완화되어 물과 공기의 침투가 좋아지고 뿌리 신장이 쉬워진다.
② O: 코어를 뽑아낸 뒤 표층 토양과 유기물이 섞이면서 표층 환경이 개선되고, 그 결과 뿌리와 지상부의 생육이 좋아질 수 있다.
③ O: 코어 에어리피케이션은 죽은 잎과 줄기가 쌓인 thatch층을 줄이는 데 효과가 크다. 표층 유기물 축적을 완화하는 대표 관리 작업에 해당한다.
④ X: 틀린 부분은 '잔디가 휴면기에 들어간 시기'이다. 실제로는 구멍을 낸 상처가 빨리 회복되도록 잔디가 활발히 자라는 생육기에 시행한다.

오답 포인트

통기작업의 효과는 대체로 쉽게 떠올리지만 실시 시기에서 자주 흔들린다. 구멍을 내는 작업이므로 잔디가 쉬는 휴면기에 해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판단 기준은 상처 회복 가능성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통기작업 선지는 '다짐 완화, 공기·물 이동 개선, 뿌리 생육 촉진, thatch 감소'를 맞는 효과로 본다. 시기를 묻는 선지에서는 휴면기처럼 회복이 느린 시기를 말하면 오답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코어 통기는 뽑아내어 숨 쉬게 하고, 휴면기가 아니라 생육기에 시행한다.

NoteBase

문 19. 조경수목이 가진 질감(textur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잎의 크기가 큰 벽오동나무, 양버즘나무 등은 고운 질감을 느끼게 한다.

② 잎의 형태가 우상복엽인 자귀나무는 단엽인 백합(튤립)나무에 비해 거친 질감을 보인다.

③ 계절에 따라서도 질감이 달라진다.

④ 좁은 공간에서는 고운 질감을 가진 수목의 식재를 피하고 거친 질감을 가진 수목을 주로 심는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경수목의 질감이 잎의 크기, 잎의 형태, 계절 변화, 공간 규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고운 질감은 잎이 작고 세밀하며 가지가 섬세하게 보여 부드럽고 멀어 보이는 인상을 주는 질감이다. 거친 질감은 잎이 크고 덩어리감이 강하며 굵게 보여 강하고 가까워 보이는 인상을 주는 질감이다. 수목의 질감은 잎의 크기와 배열뿐 아니라 개화, 잎의 밀도, 낙엽 여부 등 계절 변화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잎의 크기가 큰 벽오동나무, 양버즘나무 등은 고운 질감'이라는 표현이다. 잎이 큰 수목은 일반적으로 세부가 굵게 보여 거친 질감을 준다. 올바르게는 '잎의 크기가 큰 벽오동나무, 양버즘나무 등은 거친 질감을 느끼게 한다'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우상복엽인 자귀나무는 단엽인 백합(튤립)나무에 비해 거친 질감'이라는 표현이다. 자귀나무는 잔잎이 많이 달린 복엽이라 세밀하게 보여 대체로 고운 질감에 가깝고, 백합나무는 비교적 큰 단엽이라 더 거칠게 보일 수 있다. 올바르게는 '자귀나무는 백합나무에 비해 더 고운 질감을 보인다'이다.
③ O: 수목의 질감은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 봄과 여름에는 잎과 꽃, 신초의 밀도 때문에 질감 인상이 달라지고, 가을과 겨울에는 낙엽과 가지의 노출 정도가 달라져 같은 수목도 다른 질감으로 보인다.
④ X: 틀린 부분은 '좁은 공간에서는 고운 질감을 가진 수목의 식재를 피하고 거친 질감을 가진 수목을 주로 심는다'는 표현이다. 거친 질감의 수목은 시각적으로 공간을 더 좁고 답답하게 보이게 할 수 있으므로 좁은 공간에는 고운 질감의 수목이 더 어울린다. 올바르게는 '좁은 공간에는 고운 질감의 수목이 유리하고, 거친 질감의 수목은 넓은 공간이나 강조 지점에 제한적으로 쓴다'이다.

오답 포인트

질감을 색채처럼 막연한 분위기로 외우면 ①과 ②에서 쉽게 흔들린다. 이 문항은 '큰 잎=거침, 작은 잎과 잘게 갈라진 잎=고움'이라는 기본축을 뒤집어 놓고, ④에서는 공간 규모와 질감의 시각적 팽창 효과를 거꾸로 제시한 점이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질감 문제는 먼저 잎의 크기와 세밀도를 본다. 큰 잎, 굵은 가지, 강한 덩어리감이면 거친 질감이고, 작은 잎, 가는 가지, 촘촘한 세부이면 고운 질감이다. 그다음 계절 변화로 잎과 가지의 노출 상태가 달라지는지도 함께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큰 잎은 거칠고 작은 잎은 고우며, 고운 질감은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고 질감은 계절에 따라 변한다.

NoteBase

문 20. 창덕궁 후원에 현존하는 정자와 지당(池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용정은 팔각 형태이며 부용지는 방지원도(方池圓島)이다.

② 관람정은 부채 형태이며 원형의 반도지에 맞닿아 있다.

③ 존덕정은 육각 형태이며 직선과 곡선을 병용한 존덕지와 인접해 있다.

④ 애련정은 육각 형태이며 애련지는 방지(方池)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창덕궁 후원의 대표 정자와 지당을 형태로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부용정·부용지: 부용정은 지붕 평면이 십(十)자형에 가깝고, 부용지는 네모난 연못에 둥근 섬을 둔 방지원도형이다.
관람정·관람지: 관람정은 부채꼴 정자이고, 관람지는 한반도 모양으로 알려진 자연곡선형 반도지이다.
존덕정·존덕지: 존덕정은 육각 정자이며, 존덕지(반월지)는 직선 요소와 곡선 요소가 함께 읽히는 지당이다.
애련정·애련지: 애련정은 사각형의 작은 정자이고, 애련지는 섬이 없는 네모난 방지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부용정은 팔각 형태'이다. 부용정은 팔각정이 아니라 지붕 평면이 십(十)자형에 가까운 정자이다. 부용지는 네모난 연못과 둥근 섬이 결합한 방지원도형으로 보는 것이 맞다.
② X: 틀린 부분은 '원형의 반도지'이다. 관람정은 부채형이 맞지만, 관람지는 원형 연못이 아니라 한반도 모양으로 알려진 자연곡선형 반도지이다.
③ O: 존덕정은 육각 정자이고, 인접한 존덕지(반월지)는 방형과 반월형 요소가 함께 읽혀 직선과 곡선을 병용한 지당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X: 틀린 부분은 '애련정은 육각 형태'이다. 애련정은 육각정이 아니라 왕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각형의 작은 정자이다. 애련지는 섬이 없는 네모난 방지라는 점은 맞다.

오답 포인트

부용지의 방지원도, 관람정의 부채형, 애련지의 네모난 방지처럼 일부만 맞는 선지에 정자 형태를 바꿔 끼우는 방식이 함정이다. 특히 관람정과 애련정, 존덕정은 모두 후원 정자라는 공통점 때문에 평면 형태를 서로 바꾸어 기억하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후원 문제는 정자와 연못을 한 묶음으로 외우지 말고 '정자 평면 형태'와 '지당 평면 형태'를 따로 대조해 본다. 부용정은 십자형, 관람정은 부채형, 존덕정은 육각형, 애련정은 사각형으로 먼저 정리하면 선지를 빠르게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부용은 십자형 정자와 방지원도, 관람은 부채형 정자와 반도지, 존덕은 육각정, 애련은 사각정과 네모난 방지이다.

NoteBase